

다니엘서 - 번호 33

일요일 준수령 공포 시 새겨지는 하나님의 '인': 다니엘서 6장의 예언적 분석

Jeff Pippenger

2023-12-28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은 일요일 법령이 공포될 때 찍힌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의 품성에 한 점의 흠이나 얼룩이라도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우리 품성의 결함들을 바로잡고, 모든 더러움에서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책임이 맡겨져 있다. 그리할 때 오순절 날 제자들 위에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 위에 내릴 것이다...."

"형제 여러분, 위대한 준비의 사업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속의 틀에 맞추어지며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들이야말로 하늘의 틀에 맞추어지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칙령이 공포되고 도장이 찍히면 그들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 없이 남을 것입니다." 증언, 제5권, 214, 216.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눈에 보이는 인을 받으므로, 그 장은 일요일 준수 법령을 나타낸다.

이에 그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법은 이러하니 곧 왕이 세우신 어떤 금령과 법도도 변경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가져다가 굴 어귀에 놓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조치가 변하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 6:15-17.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만, 시작된 곳에서 끝난다. 다니엘 6장의 서사는 주로 백이십 명의 방백들과 두 명의 하위 총리가 주도했으나 모사들, 대장들, 총독들까지 포함된 연합을 보여 준다. 그 오중 연합은 왕을 속여 다니엘을 박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야기는 그들의 심판으로 끝나는데, 이는 그들이 일요일 법령 때 일어나는 특별한 심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다니엘이나 왕을 대표하는 이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왕을 속였던 자들을 향한 것이다.

왕이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한 그 남자들을 데려왔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었다. 사자들은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제압하여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이 부서뜨렸다. 다니엘 6:24.

예언적 구도에서 항상 국가를 속이는 쪽은 교회이며, 6장은 왕을 상대로 자행된 속임수를 밝히고 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 뒤, 엘리야는 빛속을 헤치고 그를 이끌어 이세벨에게로 돌아갔다. 아합에게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언에 감명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깊이 뿌리박힌 증오에 관해서는 아합이 속고 있었다.

아합과 이세벨과 맞선 엘리야의 이야기는 세레 요한(그는 엘리야였다)과 헤롯, 헤로디아의 이야기에서 다시 반복된다.

그의 생일날, 술에 취한 헤롯이 살로메(헤로디아의 딸)에게 자기 왕국의 절반을 약속했을 때, 그는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합이든 헤롯이든 다리오이든 간에 왕들은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의 춤, 헤로디아의 딸의 춤, 혹은 다니엘 이야기의 오중 동맹을 통해 부정한 여인에게 속임을 당한다. 또한 빌라도 역시 유대인의 "교회"를 대표하던 부패한 제사장단에게 속임을 당했으며, 교회는 여인을 상징한다.

그 기만은 예언적 전개 특징이며, 셋째 화의 이슬람은 마지막 때에 두려움을 통해 유엔을 속이는 데 사용되는 거짓이다. '기만'과 그 기만을 낚는 '거짓'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식별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기별의 일부로서 이슬람의 역할과, 교황권이 일곱 머리의 여덟째 머리가 되는 것 역시 이미 밝혀졌다. 그러므로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은 한밤중 외침을 이루는 기별의 일부이다. 그 기만은 치명적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여, 교황권을 여덟째이자 마지막 왕국으로 부활시키는 요소이다. 다리오의 기만에서 배도한 두 총리와 백이십 명의 방백들은 기만의 연합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다니엘과 대조된다.

120은 오순절 때의 하나님의 제자들의 상징이다.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다.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모두 합하여 약 백스무 명이였다.) 사도행전 1:15.

오순절은 일요일 법령 때 인침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며, 다리오를 속인 백이십 명의 방백들은 일요일 법령 때의 거짓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왕을 속이는 자들은 배도한 두 총리와 배도한 백이십 명의 방백들로 이루어진 두 부류로 제시된다. 두 총리는 선지자인 다니엘과 함께 분류된다. 다리오를 속이는 두 부류는 거짓 선지자들의 집단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집단을 대표한다.

내 초장의 양 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먹이는 목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어 버리고 몰아내며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행위의 악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내 양 떼의 남은 자를 모아 다시 그들의 우리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왕이 다스려 형통하고,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리라.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부를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리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쪽 땅과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집의 씨를 이끌어 올리시고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선지자들 때문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꺾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나는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압도된 사람 같도다.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 때문이라. 이 땅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하였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기름진 곳이 말라 버렸도다. 그들의 행로는 악하고 그들의 권세는 올바르지 않도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부정하니, 참으로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의 악함을 발견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는 어둠 속의 미끄러운 길 같을 것이라. 그들이 그 길에서 밀려 넘어지리니,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그들을 벌하시는 해에 그리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1-12.

예레미야의 '벌하시는 해'는 다리오를 속인 음모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예언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다룬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직이 앞장서서 로마 당국을 속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다니엘 6장의 음모는 바로 그 예언적 진리를 다루고 있다.

다니엘서 5장의 예언적 전개는 일요일법의 때에 공화주의의 뿔과 미합중국 국가 위에 집행될 심판을 제시한다. 그 심판은 무방비 상태의 남쪽 성벽을 통해 그 왕국 안으로 몰래 침투한, 세 번째 '화'의 이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3장에서의 일요일법의 맥락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 앞에 기치로 들어 올려짐을 밝혀 준다.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 동일한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집행되는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배도한 개신교의 뿔은 두 부류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예배일로서 일요일을 지지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헛되이 안식일을 예배일로 고수한다고 공언하는 부류다. 공화주의의 뿔 안에서 그에 대응하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두 배도한 뿔은 그리스도 시대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예표되었다. 다리오를 속인 사건의 두 명의 배도한 총리들과 백이십 명의 제사장들도 배도한 개신교의 뿔의 두 범주를 대표한다. 그 이야기가 일어났던 당시 그들은 실제로 정치적 인물들이었지만, 예언적 맥락은 국가를 속이는 자가 배도한 종교 권세임을 밝혀 준다.

갈멜 산에서 보여 주듯이, 그 이야기는 두 부류의 거짓 선지자를 지목한다. 곧 바알의 선지자들과 수풀의 선지자들(아스다롯)이다. 그들은 함께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하는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결국 갈멜 산의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했는데, 이는 다니엘 6장의 공모자들이 사자 굴에 던져진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그들을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였다. 열왕기상 18:40.

세레 요한으로 대표되는 동일한 갈멜 산 이야기에서도, 사람들을 속이는 세력은 딸이다. 두 이야기 모두 속이는 자들을 춤추는 자로 지목한다. 갈멜 산에서 그들의 제물 주위를 돌며 춤추든, 혹은 헤롯의 술 취한 생일 잔치에서 살로메가 속임수의 춤을 추든 마찬가지로이다. 이 두 가지는 일요일 법령에서 완전히 형성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지목하고, 미국의 배도한 교회들이 헤로디아의 딸들이며, 헤로디아는 곧 이세벨로서 둘 다 가톨릭교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헤롯의 생일은 땅의 짐승의 여섯째 왕국의 끝을 알리지만, 동시에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유엔)의 탄생을 알린다.

살로메에게 한 바로 그 약속에서 헤롯은 자신의 왕국의 절반을 살로메에게 주겠다고 동의하며, 이는 일곱째 왕국이 교회와 국가가 반반씩 결합된 형태를 나타냄을 드러낸다. 그 왕국은 요한의 머리가 헤로디아에게 넘겨질 때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일곱째 왕국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잠시 동안만 계속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삼중 연합은 일요일 법령 때에 확립되는데, 그때 열 왕이 자신들의 잠시뿐인 왕국을 '한 시간' 동안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 '한 시간'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미가엘이 일어설 때 끝나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때'이다.

네가 본 열 뿔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열 왕들이지만,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7:12-14.

헤롯으로 대표되는 열 왕들은 일곱째 왕국의 탄생일에,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 짐승에게 자기들의 왕국의 절반을 주기로 동의하는데, 이는 "한 시간"으로 표상된다. 그 "한 시간"에 벨사살의 벽에 글씨가 쓰인다. 그 "한 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처럼 구름 가운데로 올려진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땅의 짐승이 행하는 기만에 의해 삼중연합이 결집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하며,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그 이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14.

세상은 기적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행할 권세를 가진 그 기적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에 의해 속임을 당한다. '그 기적들의 수단'이라는 표현은 덧붙인 문구이지만, 기적들에 올바른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주의 깊게 유념해야 한다. 거짓된 메시지(하늘에서 내리는 불)가 세상을 속이는 방식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인구들이 지구의 글로벌리스트 상인들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는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최면에 걸리고 있는 바로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주제는 나중 글들로 미루고, 지금은 다리오에게 행해진 총리들과 방백들의 기만이 인식되어야 할 서로 연결된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는 특정한 예언적 주제임을 지적해 둔다.

삼중 연합은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벌어진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이라는 기만으로 결집되었다. 빌라도에게 강요된 기만은 이중적 성격을 띠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조장했다는 것과, 또한 종교 권위에 대해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고발이었다. 그 역사 속에서 세 적대자가 한데 모였다. 로마의 권력(국가), 거짓 그리스도(거짓 선지자)인 바라바, 그리고 배도한 유대 교회(짐승). 배도한 교회는 반란과 신성모독이라는 이중의 거짓으로 로마의 권위(국가)를 속였다.

다리우스가 마침내 자신을 속인 자들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국가의 법을 어겼다. 다리우스에게 제시된 그 거짓은 다리우스의 교만을 부추김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인 자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속의 그 거짓과 기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신성모독과 반역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동일한 이중 기만이었으며, 십자가의 이정표는 일요일 법의 이정표와 일치한다.

기만하는 종교 권력에 대한 징벌은 성경 예언의 주제이며, 종교 권력이 국가 권력을 속인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아왔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서로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서로를 비난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장 쓰디쓴 정죄를 성직자들에게 퍼붓는다. 불성실한 목사들은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해 왔고,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게 하며 그것을 거룩히 지키려는 이들을 박해하도록 이끌었다. 이제 절망 가운데서 이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만의 행위를 온 세상 앞에서 고백한다. 우리들은 분노로 가득하다. '우리는 망했다!' 그들이 외친다. '우리의 파멸은 너희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흠모하던 바로 그 이들이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저주를 퍼붓게 될 것이다. 한때 그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웠던 바로 그 손들이 이제 그들을 멸하기 위해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들었던 칼들이 이제는 그 원수들을 멸하는 데 쓰인다. 도처에 분쟁과 유혈이 난무한다." 대쟁투, 655.

은혜의 때가 끝난 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 떼가 지도자들이 퍼뜨린 거짓에 속아 왔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대통령들과 고관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이 퍼뜨린 거짓으로 인해 같은 보응의 심판을 받는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와 같은 그 보응이,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에서 "칠천 명"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상징된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고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으며, 지진으로 죽은 사람은 칠천 명이었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한계시록 11:13.

프랑스 혁명의 큰 지진이 성취될 때, 죽임을 당한 칠천 명은 프랑스의 왕족을 대표했다. 일요일 법령이라는 그 큰 지진의 '때'에, 죽임을 당하는 칠천 명은 로마에 굴복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을 대표한다. 이는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제칠일안식일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 또는 표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고도 참된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그것을 명령한 그 권세에게 경배를 드리는 셈이 된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대신하여 온 세상이 받아들인 교황권의 안식일이다.

그러나 예언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험의 때도 아직 오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아무도 빛을 받고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닫기 전에는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이 공포되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범죄를 계속하는 자들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이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그것에 반대함으로써 가장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거짓 종교를 떠받치게 될 때, 교회와 국가의 결합된 권위에 의해 교황권의 안식일이 강제로 시행될 것이다. 국가적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국가적 파멸로만 끝나게 될 것이다. 성경 훈련 학교, 1913년 2월 2일.

큰 지진의 "시간"(즉 일요일 법령)에 쓰러지는 "칠천 명"은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칠천 명"과도 상응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겨 두었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무릎과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다. 열왕기상 19:18.

칠천 명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이세벨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신실한 무리를 가리키며, 마지막 언급은 이세벨에게 절하는 남은 무리를 나타낸다.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정복하면, 한 부류는 "무너지고" 다른 부류는 바벨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이는 그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나, 이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니,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라. 다니엘 11:41.

"countries"라는 단어는 덧붙여진 것이다. 일요일 법령 때 '무너지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아니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 가운데 많은 개인들이다. 그때에는 그들만이 셋째 천사의 빛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로 '많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 들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거절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어 끌고 나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2-14.

다니엘 6장에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꾸민 속임수는 국가 권력을 속이는 종교 권력이 받을 형벌을 가리킨다.

왕이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한 그 남자들을 데려왔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었다. 사자들은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제압하여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이 부서뜨렸다. 다니엘 6:24.

다음 기사에서 다니엘서를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또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들을 얻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